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 실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 승 옥*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첫째,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를 규정하는 변수들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고, 둘째, 문제성 음주를 측정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대처성 음주동기의 관계를 탐색하고, 셋째, 부정적인 음주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7개 대도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당시 적어도 한번 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설문지 1,436부가 활용되었다. 일련의 교차분석, 변량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처동기와 문제성 음주를 측정하는 4개의 변인들은(음주소비량, 폭음경험, 만취경험, 그리고 부정적 음주결과) 모두 성별, 학교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즉 이들 변인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계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에 취한 경험의 유무는 다른 문제성 음주 변수들과는 상반되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는 실업계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문제성 음주행위를 측정하는 모든 변수들과 대처동기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음주량이 많을수록, 만취나 폭음의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처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인구

*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학적 배경보다는 폭음이나, 만취, 대처동기와 같은 음주행위 요인이 부정적인 음주 결과들(단순경험과 복수경험)을 예측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만취경험이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음주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을 통제된 경우에도 청소년기의 대처음주동기는 문제성 음주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본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1999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음주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음주의 경험이 있고 경험을 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8)는 10,000여 명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조사대상자의 74.4%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약물사용 청소년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연구(윤혜미·김용석·장승옥, 1999)에서도 고등학생의 대다수가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며(79.0%) 일부는 폭음의 경험이 있고(26.1%) 조사대상자의 48.6%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청소년기 음주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의 알코올 남용은 비행, 가족불화, 자동차 사고, 학업성적의 저하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음주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마약이나 범죄 등 다른 비행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높고, 성인이 되어서도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Banes & Welte, 1988).

아마도 알코올에 분야에서 제기되는 가장 어려운 쟁점의 하나는 청소년들의 문제성 음주와 알코올 중독에 관한 조작적 정의나 개념적 명료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APA, 1994)에 의하면 ① 내성, ② 금단증상, ③ 의도한 것보다 오랜 기간의 음주, ④ 절주의 노력이나 시도의 실패, ⑤ 음주나 숙취로 장시간 소요, ⑥ 음주로 인해 중

요한 일을 포기하거나 감소함, 그리고 ⑦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음주를 함이라는 7개 항목 중 3개가 나타나면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된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조차 성인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보여지는 신체적 의존증상이나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술을 자주 접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청소년들의 음주습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음주결과는 만성적인 음주로 인한 신체적 손상보다는 한번의 만취경험으로 인한 음주운전이나 친구들과의 싸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사고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청소년기 음주문제들은 위험가능성은 높지만 만성적인 질병의 상태라기보다는 경험의 부족이나 부주의에 의해 드러나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연령이므로 음주행위 자체가 법과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위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와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문제성 음주는 어른들의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발전된 DSM-IV의 분류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없다. 즉 청소년기의 음주문제는 신체적 의존이나 심리적 갈망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성 음주를 측정하고 음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사실상 청소년들의 음주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기존 연구들은 문제성 음주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왔으며 일반적으로 한 가지 방식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음주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White(1987)는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는 과음(*heavy drinking*)이나 잦은 빈도, 빈번한 만취(*drunkenness*), 도피성 대처동기로 인한 음주, 그리고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경험들의 4가지 차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음주문제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부정적인 음주결과들은 대개 대인관계의 문제, 업무수행의 문제, 학교에서의 갈등, 건강상의 문제, 정서적 문제, 음주로 인한 사고, 경찰과의 마찰 등이 포함된다.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방식이 다르고 술을 마시는 이유 또한 다양하지만 음주동기로 자주 측정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의 대처, 사회적 친화력, 긍정적인 정서의 고양, 또래집단과 같은 사회적 압력의 인지, 축하하기 등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음주동기는 알코올 소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Carey and Correia, 1997; Cooper, 1994). 그러나 특히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음주

를 하는 경우는 다른 동기로 술을 마시는 사람에 비해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쉽게 드러나는 고위험집단으로 알려지고 있다(Carpenter and Hansin, 1999). 대처동기로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문제성 음주자(*problem drinker*)를 규정하는 다양한 방식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음주자(*social drinker*)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문제성 음주를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나(Connors et al., 1990)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험 등(Carey and Carey, 1995)으로 측정했을 경우 모두 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대처동기가 문제성 음주행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은 사실이지만 두 요인간의 관계는 인종별, 연령별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난다(Bradizza, Reifman, & Barnes, 1999; Perkins, 1999). 따라서 상당히 허용적인 음주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대처동기와 문제성 음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보여진다.

이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들을 통해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를 규정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고,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실태를 다양한 차원에서 탐색한다.

둘째, 대처음주동기와 문제성 음주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다.

셋째, 부정적인 음주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이론적 배경

1) 음주에 관한 이론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고, 어떠한 사람들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가? 이러한 음주와 음주문제의 본질에 관한 물음은 쉽게 답을 구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문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 문화적인 요인과 개인의 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의 동기를 설명하는 스트레스 감소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음주의 형식과 음주의 의미들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사실상 알코올 남용을 어떻

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 자체도 문화적으로 조건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Mandelbaum, 1979). MacAndrew & Edgerton(1969)은 인디언들의 술에 취한 많은 행위를 연구한 결과 술에 취한 행위들은 알코올 성분에 의한 화학작용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배우고 규제된 문화적 행위임을 지적했다. 인디언들이 술에 취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때로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이를 술기운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술에 취해도 특별히 일상에서 벗어난 행위들로 나타나지 않는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음주로 인한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변명이라는 것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들, 특히 공격성이나 성적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믿음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Cho and Faulkner(1993)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은 알코올 중독의 개념이 한국과 미국 두 문화에서 모두 존재하지만, 한국인은 알코올 중독을 오랜 기간동안 알코올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경우로 제한시키는 반면에 미국인은 주로 사회적, 행위적 용어로 구성된 정의로 알코올중독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와 연관된 문제의 본질과 정도는 사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다른 사회에서뿐 아니라 같은 사회 안에서도 연령이나 성별, 계층과 같은 하위집단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Welte & Barnes(198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알코올 소비량과 알코올로 인한 문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음주자 비율(45%)은 다른 인종의 청소년들보다 낮지만, 음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비하는 술의 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소비한 술의 양을 동일하게 계산하면, 1온스당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어느 다른 인종집단의 습관성 음주자보다 많은 양의 알코올을 소비하지만 문제를 적게 발생시킨다는 이 결과는 음주의 양이 음주로 인한 문제로 단순히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음주에 대한 태도와 알코올 사용의 차이, 그리고 알코올중독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Bales(1946)는 한 사회의 알코올중독 유행률은 세 가지 요인들 즉 ① 사회 성원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 ② 알코올에 대한 규범적인 태도, 그리고 ③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의 유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

다는 가설을 세웠다. Bales는 이중에서 특히 알코올에 대한 태도가 알코올중독률에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는데, 의례적 태도를 가진 정통 유대교도들 중에는 만취하는 경우가 드물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아일랜드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대교도들은 일찍이 문화 속에 통합되고 알코올의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는 종교적 의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술을 접하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아일랜드 음주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부적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음주를 택하기 때문에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해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긴장완화와 스트레스 감소이론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서 술을 마시는 행위처럼 주로 개인의 심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 후의 심리적·정서적 변화에 관심을 보인다. 긴장완화 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술이 긴장이나 불안과 같은 피하고 싶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믿음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Jung, 1994). 사람들은 긴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 술이 긴장을 줄여준다고 기대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만일 이러한 기대가 충족된다면 다음에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선택하는 경향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스트레스는 음주를 통해 감소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은 음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감소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알코올이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믿는 한 비록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음주자는 궁극적으로 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습득하기 전에는 술을 계속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처방안이 가능하다면 알코올을 통한 긴장 감소의 시도는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음주문제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는 술로 인한 문제로 고통을 받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코올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유일한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2) 청소년 문제성 음주와 음주동기에 관한 연구들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윤희미 외(1999) 연구에서는 음주량이 많거나 폭음의 경험이 있고, 음주로 인한 문

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의 음주유형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성(gender)과 학교계열은 중요한 배경변인으로 드러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알코올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사교성, 공격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해소 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사교적 기능과 공격성에 대한 효과에서 인문계 고등학생들보다 알코올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들의 음주경험이 가장 높은 17세 경의 청소년들의 85%가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주 마시고 마시는 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과음자(*heavier drinker*)에게서 더욱 명백해진다.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매일 술을 마시는 학생은 4~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5배 정도로 나타났다(Pandina, White, and Milgram, 1991).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학생의 경우에서도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구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록 음주인구는 남녀의 차이 없이 90% 정도로 나타났으나 술에 취한 경험의 빈도나 한 달간의 음주량으로 보면 남학생들의 알코올 소비가 여학생들의 소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장승욱, 1997). 또한 청년들은 성인에 비해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술을 마실 때 많은 양을 마시는 경향이 있다(Hartford & Mills, 1978). 따라서 필름이 끊긴다거나 숙취로 고생하는 것처럼, 심각한 증상으로 고생하게 되며, 공격적인 행동과 같이 과격한 행동으로 종종 나타나게 된다(Pandina, White, and Milgram, 1991).

청소년기의 문제성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Jessor와 Jessor(1977)는 비행에 대한 관용, 종교성의 부족, 약물이나 성에 관한 긍정적인 기능을 중시, 학업능력의 저하, 문제성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인정 등을 지적한다. 반면에 Cooper(1994)는 청소년기의 대처음주동기가 음주량을 통제한 경우에도 과음이나 음주로 인한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이나 대학생의 표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문제성 음주자의 다양한 정의 즉 음주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료의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대처동기와 문제성 음주행위의 관계의 정도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청·장년층의 대학시절

과 대학을 졸업한 후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와 문제성 음주의 관계를 조사한 Perkins (1999)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의 비율은 대학시절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의 결과는 졸업 후에 좀더 문제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더 일찍 졸업하자마자 많은 양의 술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대처동기와 문제성 음주의 관계는 인종간,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Bradizza, Reifman, & Barnes(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보다는 중기와 후기에 사회적 음주동기와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동기가 알코올 남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 행위와 대처동기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방법

1) 조사대상과 표집절차

설문 대상자는 전국 7개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로 이들을 성별, 학년별, 지역별, 계열별로 층화표집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로 각 지역의 조사자가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설문지 1,680부 중에서 조사당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음주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85.7%로 본 연구에서는 1,436부의 설문지가 활용되었다.

2) 조사도구 및 측정

인구학적 변수 : 성별, 학교분류(인문계와 실업계), 학년, 종교행사의 참여도가 중요한 배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종교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특정 종교집단의 소

속보다는 종교행사에 참여도가 좀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본 조사에서는 종교행사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지난 일년간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문제성 음주 :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성 음주를 측정하여 비교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의 음주량, 일 년간 만취(*drunkenness*) 경험의 유무, 폭음(1회에 5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의 유무, 그리고 알코올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조사되었다. 한 달간의 음주량은 지난 한 달 동안 마신 모든 술의 종류와 양을 기입하도록 하여 총량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1) 이렇게 측정한 한 달간의 음주량을 비음주자, 15잔 미만 음주자, 15잔 이상 음주자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음주집단을 나누었다.

알코올로 인한 문제는 12세부터 21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Rutgers Alcohol Problem Index(RAPI)를 사용하였다. RAPI 척도는 23문항의 자기 기입식 알코올 관련 문제를 측정하는 척도로 내적인 일치도(.92)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White and Labouvie, 1989). 이 RAPI 척도 중 본 조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윤혜미 외, 1999)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기입한 10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알코올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측정하였다. <표 1>은 학생들이 경험한 부정적인 결과의 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10개의 부정적인 결과의 경험은 문항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척도(알파계수가 .724)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평균 1.61개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다시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한 개 이상 경험한 집단, 두 개 이상을 경험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에서 활용되었다. 부정적인 결과를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41.4%, 문제를 2개 이상 경험한 학생은 39%로 나타났다.

대처동기 : 음주의 이유가 대처수단인 경우는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살펴본 문항의 신뢰도는 .5751이었다. 대처동기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중에서 빈도수가 낮은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어서'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싫어서'라는 두 문항을 제거하고 4개의 항목을 문항분석한 결과

1) 물론 술 한잔에 담긴 알코올의 농도는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양주나 소주와 같은 에탄올의 농도가 높은 술은 적은 잔으로 마시며 맥주나 막걸리는 큰잔으로 마시게 된다. 따라서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술 1잔은 같은 양의 순수 알코올을 함유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소주 한 병은 7잔, 맥주 1캔은 1.4잔으로 측정하였다.

〈표 1〉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성 음주

내 용	있다 N(%)
1. 숙제나 시험공부를 할 수 없었다.	182(14.1)
2. 싸움에 끼여들거나, 나쁜 행동 또는 욕을 했다.	228(15.9)
3. 술값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것을 살 수 없었다.	269(20.8)
4. 다른 사람을 황당하게 하거나 무안하게 했다.	311(24.1)
5.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다.	149(11.6)
6.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술을 마셨다.	468(36.3)
7. 성격이 변했음을 알게 되었다.	188(14.6)
8. 갑자기 정신이 회미해지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207(14.4)
9. 친구와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고, 나쁜 감정을 가졌다.	138(10.7)
10.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계속 마셨다.	173(13.5)

〈표 2〉 대처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이유

내 용	있다 N(%)
1.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어서	160(12.7)
2.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싫어서	104(8.3)
3. 술 마시면 내 문제나 근심을 잊을 수 있어서	433(34.3)
4. 술 마시면 자신감과 확신이 생겨서	209(16.7)
5. 긴장하거나 불안해서	207(16.5)
6. 화가 나서 기분을 풀기 위해	615(48.6)

.6499로 훨씬 신뢰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대처동기는 ‘내 문제나 근심을 잊을 수 있어서’, ‘자신감과 확신이 생겨’, ‘긴장하거나 불안해서’, 그리고 ‘화가 나서’의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4점까지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조사의 자료는 SPSSPC 8.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및 분석되었다. 인구학적 변인과 문제성 음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일련의 교차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인구학적 변인, 문제성 음주 그리고 대처동기의 관계는 변량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이 사

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단순경험유무)과 두 개의 상의 결과를 경험한 집단(복수경험유무)을 찾아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 활용되었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56.2%, 여자 43.8%로 조사시점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이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고 학생(58.3%)이 실업고(41.7%)에 비해 많았고, 학년별로는 1학년 30.7%, 2학년 34.8%, 3학년 34.6%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종교성이 음주습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종교행사 참여도는 '일주일에 한 번'을 응답한 학생은 17.4%, '일년간 참석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3.6%를 차지하여 종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음주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항 목		빈 도	퍼센트
성 별	남학생	807	56.2
	여학생	629	43.8
계 열	인문고	837	58.3
	실업고	599	41.7
학 년	1학년	431	30.7
	2학년	489	34.8
	3학년	486	34.6
종교행사 참여도	일주일에 한 번	244	17.4
	한달에 1~3회	135	9.6
	일년에 1~11회	271	19.3
	지난 일년간 한번도 참석 안함	752	53.6

2)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

〈표 4〉는 성별에 따른 문제성 음주행위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문제성 음주행위는 모든 측정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성 차를 보여준다. 음주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한달간 15잔 이상 술을 마신 고위험군인 남학생은 7.9%, 여학생은 2.9%로 나타나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2.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음주량에 비례하여 폭음(5잔 이상 음주)의 경험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한 개 이상 경험한 경우, 두 개 이상 경험한 경우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만취의 경험은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남학생(23%)에 비해 여학생이(29%)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로서는 음주의 경험이 적은 여학생의 경우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쉽게 취기를 느낄 것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이므로 여학생이 좀더 술에 취한 상태를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으나 좀더 많은 연구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표 5〉는 학교계열에 따른 문제성 음주행위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한달간 음주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로 나타났다. 폭음의 경험이 있는 실업고 학생은 48%이며 인문계 학생은 30.2%,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않은 학

〈표 4〉 성별 문제성 음주유형

문제성 음주		성 별		χ^2
		남학생	여학생	
한달간 음주량	비음주자	613 (76.0)	529 (84.1)	21.11***
	15잔 미만	130 (16.1)	82 (13.0)	
	15잔 이상	64 (7.9)	18 (2.9)	
만취경험	없음	614 (76.1)	384 (61.0)	37.70***
	있음	193 (23.9)	245 (39.0)	
5잔 이상 폭음 경험	없다	305 (49.3)	429 (77.0)	96.22***
	있다	314 (50.7)	128 (23.0)	
부정적인 결과 1	없다	288 (35.7)	519 (64.3)	24.48***
	있다	519 (64.3)	323 (51.4)	
부정적인 결과 2	0 또는 1개	463 (57.4)	344 (42.6)	10.21**
	2 이상	344 (42.6)	216 (34.3)	

주 : *** p < .001, ** p < .01, * p < .05

〈표 5〉 계열별 문제성 음주유형

문제성 음주		계 열 별		χ^2
		인문계	실업계	
한달간 음주량	비음주자	660 (78.9)	482 (80.5)	4.33
	15잔 미만	135 (16.1)	77 (12.9)	
	15잔 이상	42 (5.0)	40 (6.7)	
만취경험	없음	546 (65.2)	452 (75.5)	17.22***
	있음	291 (34.8)	147 (24.5)	
5잔 이상 폭음 경험	없다	480 (69.8)	254 (52.0)	38.21***
	있다	208 (30.2)	234 (48.0)	
부정적인 결과 1	없다	368 (44.0)	226 (37.7)	5.60*
	있다	469 (56.0)	373 (62.3)	
부정적인 결과 2	0 또는 1개	543 (64.9)	333 (55.6)	12.64**
	2 이상	294 (35.1)	266 (44.4)	

주 : *** $p < .001$, ** $p < .01$, * $p < .05$

생은 인문계 44%, 실업계 37.7%이며, 2개 이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한 학생은 인문계 35.1%, 실업계 44.4%로 나타났다. 만취경험은 다른 음주행위 변수에서 비율이 높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인문계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별에서와 같이 음주의 양이나 폭음의 경험이 적은 실업계 학생들이 쉽게 취하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술을 마실 경우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년별 문제성 음주를 비교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모든 문제성 음주의 측정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학년별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문제성 음주 변수마다 학년별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 달간 음주량을 살펴보면 15잔 이상 마신 고위험군은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만취의 경험은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음의 경험은 비록 2학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 1학년에 2배 가까이 폭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적인 결과의 경험은 모두 학년이 높을수록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행사의 참여빈도를 통해서 본 종교성의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만취의 경험이나 폭음의 경험, 부정적인 결과의 중복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

〈표 6〉 학년별 문제성 음주유형

문제성 음주		학 년			χ^2
		1학년	2학년	3학년	
한달간 음주량	비음주자	325 (75.4)	388 (79.3)	399 (82.1)	15.31**
	15잔 미만	87 (20.2)	69 (14.1)	56 (11.5)	
	15잔 이상	19 (4.4)	56 (11.5)	31 (6.4)	
만취경험	없음	273 (63.3)	335 (68.5)	370 (76.1)	18.04***
	있음	158 (36.7)	154 (31.5)	116 (23.9)	
5잔 이상 폭음 경험	없다	253 (74.2)	231 (57.8)	228 (56.0)	30.77**
	있다	88 (25.8)	169 (43.2)	179 (44.0)	
부정적인 결과 1	없다	215 (49.9)	188 (38.4)	172 (35.4)	21.71***
	있다	216 (50.1)	301 (61.6)	314 (64.6)	
부정적인 결과 2	0 또는 1개	294 (68.2)	291 (59.5)	269 (55.3)	16.33***
	2 이상	137 (31.8)	198 (40.5)	217 (44.7)	

주 : *** p < .001, ** p < .01, * p < .05

〈표 7〉 종교행사 참여도별 문제성 음주유형

문제성 음주		학 년			참석 안함	χ^2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달에 1~3회	일년에 1~11회		
한달간 음주량	비음주자	196 (80.3)	102 (75.6)	214 (79.0)	597 (79.4)	5.19
	15잔 미만	34 (13.9)	20 (14.8)	45 (16.6)	112 (14.9)	
	15잔 이상	14 (17.1)	13 (9.6)	12 (4.4)	43 (5.7)	
만취경험	없음	154 (63.1)	88 (65.2)	198 (73.1)	540 (71.8)	9.36*
	있음	90 (36.9)	47 (34.8)	73 (26.9)	212 (38.2)	
5잔 이상 폭음 경험	없다	141 (70.1)	66 (62.3)	138 (63.0)	361 (58.5)	8.91*
	있다	60 (29.9)	40 (37.7)	81 (37.0)	256 (41.5)	
부정적인 결과 1	없다	113 (46.3)	52 (38.5)	109 (40.2)	297 (39.5)	3.93
	있다	131 (53.7)	83 (61.5)	162 (59.8)	455 (60.5)	
부정적인 결과 2	0 또는 1개	168 (68.9)	76 (56.3)	160 (59.0)	446 (59.3)	8.81*
	2 이상	76 (31.1)	59 (43.7)	111 (41.0)	306 (40.7)	

주 : *** p < .001, ** p < .01, * p < .05

가 나타났다(p > .05). 술에 취한 경험은 종교행사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적게 나타났으며 폭음의 경험도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41.5%이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30%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경

험은 단순한 경험과 중복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참석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 자주 참석할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빈도는 높으며 중복경험의 경우는 종교행사 참여도에 따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3) 대처동기 : 인구학적 변인과 문제성 음주와의 관계

〈표 8〉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처동기척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학년은 어릴수록, 종교행사의 참여도는 참여도가 높을수록 대처동기가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음주의 동기가 대처수단인 경우는 남학생(평균 1.20)에 비해 여학생(평균 .92)이 많고 인문계(평균 .93) 보다는 실업계(평균 1.1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러한 차이는 음주량과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비례하는 것으로 술을 많이 마실수록 음주의 이유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성 음주행위와 대처동기의 관계는 〈표 9〉에 제시되었다. 문제성 음주행위를 측정하는 모든 변수에서 대처동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 달간 음주량이 많을수록 대처동기는 중요한 음주동기로 나타났으며 만취의 경

〈표 8〉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처동기 척도 평균값과 표준편차

배경 변인		대처 동기		T(F) 값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학생	1.10	1.24	2.84**
	여학생	.92	1.11	
계열별	인문계	.93	1.15	3.32**
	실업계	1.14	1.22	
학 년	1학년	.99	1.21	.86
	2학년	1.01	1.16	
	3학년	1.08	1.20	
종교행사 참여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92	1.16	1.12
	한 달에 1~3회	.99	1.17	
	일년에 1~11회	1.08	1.25	
	참석 안함	1.06	1.18	

주 : *** $p < .001$, ** $p < .01$, * $p < .05$

험이 있거나 폭음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대처동기로 음주를 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결과는 단순경험이나 중복경험을 측정할 경우에 모두 대처동기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부정적인 음주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복경험의 경우는 단순경험보다 대처동기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성 음주행위를 측정한 변수와 대처동기사이의 상관계수를 표시한 <표 10>은

<표 9> 문제성 음주행위에 따른 대처동기 척도 평균값과 표준편차

문제성 음주행위		대처 동기	평 균	표준편차	T(F) 값
한달간 음주량	비음주자		.95	1.15	17.26***
	15잔 미만		1.14	1.21	
	15잔 이상		1.71	1.39	
만취경험	없다		.47	.90	12.15***
	있다		1.26	1.22	
폭음 경험	없다		.78	1.11	11.14***
	있다		1.55	1.20	
부정적인 결과 1	없다		.54	.97	13.61***
	있다		1.36	1.21	
부정적인 결과 2	0 또는 1개		.67	1.04	15.01***
	2 이상		1.57	1.20	

주 : *** p < .001, ** p < .01, * p < .05

<표 10> 문제성 음주 변수와 대처동기 척도의 상관계수

남 / 여	대처동기	부정적인 결과	한달 음주량	취한 경험	폭음유무
대처동기	1.00	.377**	.121**	.291**	.312**
부정적인 결과	.411**		.084**	.353**	.433**
한달 음주량	.174**	.168**		.160**	.320**
취한 경험	.311**	.416**	.206**		.431**
폭음유무	.277**	.323**	.279**	.324**	

주 : * 대각선 위는 남학생, 아래는 여학생의 분포임.
 ** 모든 계수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수치임.

대처동기 음주가 문제성 음주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Cooper et al., 1992). 즉 성별에 관계없이 대처동기는 부정적인 결과의 경험, 한 달간 음주량, 폭음과 만취의 경험 유무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성 음주의 하위변인 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만 관계의 정도는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대처동기와 부정적인 결과의 경험이 가장 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폭음의 경험이 부정적인 결과와 가장 높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나 변인간의 관계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11〉과 〈표 12〉는 알코올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의 유무와 중복경험 유무 두 범주로 나누어 각 변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떤지를 분석한 것이다. 〈표 11〉은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하나라도 경험한 학생들을 예측하는 변수를 문제성 음주행위(모형 1), 인구사회학적 배경(모형 2), 그리고 인구학적 배경과 음주행위 중 관련변인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 3으로 정리한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의 결과를 모형별로 살펴보면 제1모형에서는 폭음경험, 만취경험, 대처동기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Odd ratio를 비교해 본 결과 폭음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없는 학생에 비해 3.8배 정도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되며 만취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4배 정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대처동기로 술을 마시는 경우 대처동기가 한 개 증가할 때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은 1.6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형 2에서는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이 부정적인 결과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인구학적 요인 중에는 성별과 학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1.6배 정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1학년에 비해 2학년은 1.6배, 3학년은 1.8배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각 단계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인구학적 변수와 음주행위를 합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한 것이다. 모형 3에 의하면 학년과 폭음경험, 만취경험, 대

〈표 11〉 부정적인 결과 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 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 E)	EXP (B)	B (S. E)	EXP (B)	B (S. E)	EXP (B)
인구학적 배경	성별	남학생 여학생(기준)			.4636 (.4636)** *	1.59	-.0003 (.1531)	.99
	계열	인문고(기준) 실업고			.2710* (.1114)	1.31	.1014 (.1513)	1.11
	학년	1학년(기준)						
		2학년 3학년			.4401** (.1363)	1.55	.4850** (.1803)	1.62
종교 참여도	참석 안함(기준)							
	한주에 한번 이상			.3548 (.2241)	1.42			
	한달에 1~3회 1년에 1~11회			.2475 (.1823)	1.29			
음주행위 변수	한달 음주량	비음주자	-.2280 (.2057)	.80				
		15잔 미만(기준) 15잔 이상	.2979 (.4122)	1.35				
	폭음 경험	없다(기준)	1.3366*** (.1772)	3.81			1.3691*** (.1605)	3.53
		있다						
만취 경험	없다(기준)	1.3797*** (.1577)	3.97			1.2891*** (.1795)	3.93	
	있다							
대처 동기	연속변수	.4676*** (.0689)	1.58			.4585*** (.0697)	1.58	
상수			-1.3314		-.5622		-1.6633	
N			1176		1394		1148	
모델 χ^2			380.66***		50.18***		378.42***	
R ²			.277		.035		.281	

주: *** p < .001, ** p < .01, * p < .05

〈표 12〉 부정적인 결과 중복경험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 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 E)	EXP (B)	B (S. E)	EXP (B)	B (S. E)	EXP (B)
인구학적 배경	성별	남학생 여학생(기준)			.2854* (.1140)	1.33	-.2574 (.1531)	.77
	계열	인문고(기준) 실업고			.3960*** (.1137)	1.49	.2243 (.1479)	1.25
	학년	1학년(기준) 2학년			.3552* (.1410)	1.43	.2418 (.1835)	1.27
		3학년			.5605*** (.1404)	1.75	.3506 (.1812)	1.41
	종교 참여도	참석 안함(기준) 한주에 한번 이상			.6141** (.2266)	1.85	.6082* (.2957)	1.84
		한달에 1~3회 1년에 1~11회			.4449* (.1890)	1.56	.2447 (.2394)	1.28
음주행위 변수	한달 음주량	비음주자	.2619 (.2819)	1.30				
		15잔 미만(기준) 15잔 이상	-.1110 (.3168)	.89				
	폭음 경험	없다(기준) 있다	1.2324*** (.1531)	3.43			1.1821*** (.1577)	3.26
		만취 경험	없다(기준) 있다	1.4989*** (.1932)	4.48			1.4571*** (.1973)
대처 동기	연속변수	.4716*** (.0613)	1.60			.4580*** (.0622)	1.58	
		상수	-1.2194		-1.4413		-2.8118	
		N	1176		1394		1136	
		모델 χ^2	368.34***		46.41***		359.82***	
		R ²	.269		.033		.271	

주: *** p < .001, ** p < .01, * p < .05

처동기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데 기여하는 유의미한 변수이다. 이 중 만취의 경험자와 폭음의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모두 4배 가까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학적 배경보다는 음주행위 변수가 부정적인 결과의 경험 유무를 예측하는 좀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결과를 둘 이상 경험한 중복경험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제1모형에서는 폭음경험, 만취경험, 대처동기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Odd ratio를 조사한 결과 폭음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없는 학생에 비해 3.4배 정도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며 만취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4.5배 정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나타나, <표 11>의 문제의 단순경험과 비교해 보면 폭음 경험의 영향력은 조금 감소한 반면 만취경험의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처동기로 술을 마시는 경우 대처동기가 한 개 증가할 때마다 부정적인 음주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은 1.6배 증가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이 부정적인 결과의 중복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모형 2에서는 4개의 배경변수가 모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1.3배 정도, 인문계에 비해 실업계 학생들은 1.5배가 부정적인 결과를 중복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1학년에 비해 2학년은 1.4배, 3학년은 1.8배가, 종교참여도는 참석 안 하는 사람에 비해 한 주에 한 번 이상 참석자는 1.9배가 부정적인 결과를 중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변수와 음주행위를 합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한 모형 3에 의하면 모든 인구학적 요인은 부정적인 결과 중복경험자를 예측하는 데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반면에 음주행위 변수들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취경험자는 비경험자의 3.3배, 폭음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모두 4.3배, 그리고 대처동기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부정적인 결과의 중복 경험 가능성은 1.6배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경험자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배경보다는 음주행위변수가 중복경험자를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비중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만취(Drunkenness) 경험이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음주문제는 알코올중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성 음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전개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청소년들의 문제성 음주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정적인 환경이나 또래의 압력과 같은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를 다양하게 탐색하고 변수들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려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처동기와 문제성 음주행위를 측정하는 4개의 변수 즉 음주량과 폭음경험, 만취경험, 그리고 부정적 결과의 경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성차 및 학교 계열별 차이가 나타났다. 문제성 음주를 측정하는 세 변수(음주량, 폭음경험, 그리고 대처동기)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인문계학생에 비해 실업계 학생들이 고위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취의 경험은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는 인문계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좀더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며 현재로서는 음주의 경험이 적은 집단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취기를 느끼기 쉽고, 자기기입식 설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문제성 음주행위를 측정하는 모든 변수에서 대처동기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음주량이 많을수록, 만취나 폭음의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처동기로 음주를 행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를 측정하는 4개의 변수는 비록 관계의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관계의 정도는 낮게 나타난 본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문제성 음주는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특히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경험할수록 대처동기가 높게 나타나 대처동기음주가 문제성 음주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Cooper et al., 1992). 청소년기의 대처음주동기가 음주량을 통제할 경우에도 폭음이나 음주로 인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본 조사의 결과는 Cooper(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청소년기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주나 절주의 강조보다 음주가 아닌 새로운 대처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셋째, 부정적인 결과의 단순경험이나 복수경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성차나 학년과 같은 인구학적 배경보다는 폭음이나, 만취, 음주동기와 같은 음주행위변수가 기여하는 비중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만취(*drunkenness*) 경험이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조사의 결과, 만취의 경험은 음주량이나 문제의 정도, 5잔 이상의 폭음의 경험 등에서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남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저위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여학생, 인문계 학생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문제성 음주를 측정하는 다른 변수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부정적인 음주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가장 정확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음주행위 중 만취의 경험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과 개입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변화의 목표가 되었던 절대 음주량의 감소나 1회에 보통 5잔 이상의 술을 소비하는 폭음의 빈도를 줄이려는 노력 못지 않게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인 취한 경험에 대한 연구와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함께 자신의 주량을 알도록 하고 강권하지 않는 음주문화를 정착하려는 노력 등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윤혜미·김용석·장승옥.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8호. pp. 158~179.
 장승옥. 1997.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1호. pp. 423~44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마약 없는 밝은 사회》 제13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Washington, D. C.
 Bales, R. F. 1946. "Cultural Differences in Rate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 pp. 480~499.
 Banes, G. M. & J. W. Welte. "Predictors of drinking while intoxicated among teen-

- agers." *J. Drug Issues*. 18. pp.367~384.
- Bradizza, C. M., A. Reifman, & G. M. Barnes. 1999. "Social and coping Reasons for Drinking: Predicting alcohol misuse in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pp.491~499.
- Carey, K. B. & M. P. Carey. 1995. "Reasons for drinking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Relationship with drinking patterns." *Psychol. Addict. Behav.* 9. pp.251~257.
- Carey, K. B. and C. J. Correia. 1997. "Drinking motives predict alcohol-related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 pp.100~105.
- Cho, Y. K. & W. R. Faulkner. 1993. "Conceptions of alcoholism among Koreans and America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 18(8). pp.681~694.
- Connors, G. J., T. J. O'Farrell, & H. S. G. Cutter, 1990. "Using a drinking motivation scale to predict degrees of problematic drinking." *Drug Alcohol Depend.* 26. pp.175~181.
-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 Assess.*" 6. pp.117~128. cited by C. M. Bradizza, A. Reifman & G. M. Barnes. 1999. op. cit.
- Devine E. G. and H. Rosenberg. 2000.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expectancies and drinking among DUI Offenders Using Expectancy Categor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 pp.164~167.
- Donovan, J. E. & R. Jessor. 1978. "Adolescent problem drinking: Psychological correlates in a national sample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9. pp.1506~1524.
- Donovan, J. E. and R. Jessor, and L. Jessor. 1983. "Problem drinking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 follow-up." *Study. J. Stud. Alcohol*. 44. pp.109~137.
- Hartford, T. C. & G. S. Mills. 1978. "Age-related trends in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9. pp.207~210.
- Jung, J. 1994. *Under the Influence: Alcohol and Human Behavior*.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MacAndrew, C., & R. Edgerton. 1969. *Drunken Comportment*. Chicago: Alcine.
- Mandelbaum, D. 1979. "Alcohol and culture." in M. Marshall(ed.). *Beliefs, Behaviors, and Alcoholic Beverages: A Cross-cultural Surve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14~35.
- Pandina, White, & Milgram. 1991. "Assessing youthful drinking patterns." in D. J. Pittman, and H. R. White(eds.). *Society, Culture, and Drinking Patterns Reex-*

- amined*.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pp. 221~241.
- Perkins, H. W. 1999. "Stress-motivated drinking in collegiate and Post collegiate Young Adulthood: Life Course and Gender Patterns." *J. Stud. Alcohol*. 60. pp. 219~227.
- Welte, J. W. and G. M. Banes. 1987. "Alcohol use among adolescent minority groups." *J. Stud. Alcohol*. 48. pp. 329~336.
- White, H. R. and E. W. Labouvie. 1989. "Toward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problem drinking." *J. Studies Alcohol*. 50. pp. 30~37.
- White, H. R. 1987. "Longitudinal stability and dimensional structure of problem drinking in adolescence." *J. Stud. alcohol*. 48. pp. 541~550.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Problem Drin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Jang, Seung-Ock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high school students and aims not only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roblem drinking measures and drinking motives to cope but also to determine the factors to predict the negative consequences related to alcohol. 1,436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seven big cities'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ever experienced drinking.

The survey data identifi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rinking motives to cope and 4 measures of problem drinking depending on gender and the school type. It should be noted that more girls and more students in vocational schools had experienced drunkenness rather than boys and students in academic schools unlike alcohol consumption, binge drinking, and negative consequences related to alcohol. Second, the use of alcohol to cope may place individuals at greater risk for alcohol problems. Four dimensions of problem drinking are moderately correlated to drinking motives to cope.

Third, the result from logistic regressions indicated that factors related to drinking (binge drinking, drunkenness, and drinking reasons to cope) rather than demographic factors would be contributed more to one more as well as two more negative consequences. Especially, drunkenness seems to be the best factor to predict negative consequences related to alcoho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evention programs are suggested.